

'고(故) 朴正熙 대통령 제7주기' 추도사

1984. 7월 김종필 총재는 전예용 씨 등 구어권舊與圈 인사들에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박 대통령의 5주기부터 추도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으나(당시 신정부의 압력에 의해 서거 후 추도식을 갖지 못했음), 또 다시 5공 정부의 제지로 무산霧散됐다. 그해 12월에는 전예용 씨 등 2백여 명이 모여 '민족중흥동지회'를 결성하고, 박 대통령 6주기도 묘지 참배로 대신했다. 1986년 제7주기에는 김 총재가 추도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꼭 7년 만에 첫 공개 추도식을 가졌다. 국립묘지에서 열린 이 추도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1만3천여 명이 참석했다.

어른께서는 겨레에게 결정적인 동기와 전기를 마련, 겨레의 잠재력을 일깨워 새로운 분발의 불꽃을 점화

국민 각자의 가슴에

어른께서 홀연히 가신지 7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른을 추모하고자 방방곡곡坊坊曲曲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리 없이 가슴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을 추모하는 울음인 동시에 저희들의 미거未舉함으로 말미암아 어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탓으로 어른께서 구천九泉에서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계시지나 않을까 만감萬感어린 자괴自愧와 회한悔恨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른께서는 이 나라 이 겨레가 빈곤과 체념 속에서 혼미昏迷를 거듭하고 있을 때, 감연敢然히 일어나셔서 우리 겨레에게 결정적인 동기와 전기를 마련하여 새로운 출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조국근대화란 목표의 제시였으며, 겨레의 잠자던 잠재력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각성과 의욕의 환기喚起로써 잃었던 의지를 되세워 국민 각자의 가슴에 내일예의 모든 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는 새로운 분발의 불꽃을 점화시켜주신 일이었습니다.

조국근대화란 국가 영위營爲의 합리화요, 과학기술화요, 산업화요, 공업화며 자유화요 민주화이며, 나아가서는 국제화요 복지화라고 어른께서는 갈파喝破하셨습니다.

절대빈곤絕對貧困을 추방하고

전근대적인 의식구조를 개신改新해야

이러한 미덕美德은 그것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토착화하고 생활화 될 수 있는 토양이 없이는 생성할 수 없다고 믿으시고, 그 토양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대빈곤絕對貧困을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를 개신改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대화의 기초는 민족의 열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민주화나 국제화를 위해서도 세계인이 되기 이전에 확고한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민족적 심근心根과 주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항시恒時 공산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근대화란 곧 생존을 위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뜻한다고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른의 국가 최고 관리철학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

뢰와 지지의 밑바탕이 되어 영도자와 온 겨레가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는 결집력과 응고제凝固劑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마침내 전 국민이 한결같이 창의創意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 가난의 슬픈 유산을 청산하고 현대적 공업국가로서의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직 조국근대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신

일의직도—意直到 의지와 경륜을 믿고 따라

어른께서는 1960년대에는 빈곤을 추방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닦으며, 70년대에는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여 그 기반과 토양 위에서 80년대에는 정치적인 민주화와 정치·경제·문화적인 국제화,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화를 일단 완성함으로써 조국근대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이 높고 위대한 어른의 경륜이야말로 5.16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승화 발전시켜 민족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참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른께서 강행하시는 방법이나 선택이나 과정에 대해서 때로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근대화를 이룩하여 민족중흥의 위업을 성취하여야 마땅하다는 어른의 일의직도—意直到의 의지와 경륜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일국교정상화로 사해四海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시고, 경제건설과 산업화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마련하셨습니다.

월남파병으로 한미 간의 혈맹이 더욱 굳게 다져졌을 뿐 아니라 국군의 대공전력對共戰力의 고도화와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민간 건설역량의 해외 진출이 대형화 되었습니다.

겨레의 슬기와 용기와 의욕을 결집하여 조성된 개발력과 진취력은 마침내 내외의 여러 도전과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1,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공

업입국, 수출입국輸出入國의 터전을 다져 무無에서 유有의 국력신장을 이룩해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격으로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걸쳐 우리나라의 주변정세는 내일을 헤아리기 힘든 혼미昏迷와 전환轉換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전투병력의 대폭 감축과 베트남 철수로부터 중공과의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아對亞정책의 변화는 우리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중공의 접근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 즉각 중공 리시현상을 불러일으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했고, 대만臺灣은 유엔에서 물러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우방들과의 국교國交마저 단절되는 비운悲運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월남전을 둘러싸고 미국은 동요動搖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1972년 서울에서 회갑연回甲宴을 갖겠다고 남침을 호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족상잔을 피하고 공존의 자주국방 위해

국력의 집중화와 유기화가 불가결의 요건

이와 같은 정황 아래에서 어른께서는 조국이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시고, 남북에 또다시 동족상잔同族相殘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단으로 남북대화를 실현시키는데 주도主導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냉혹하게 다난多難해지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빈곤추방을 위해 달렸던 1960년대의 외길 의욕과는 달리, 이제 다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국민들은 이상理想과 현실과의 괴리乖離에서 갈등과 욕구불만이 증대되면서 정치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시대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려 오고 있는 경제적 도약을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앞에 놓고 어른께서는 취약한 국력으로 써 변화무쌍한 내외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능동적으로 건설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조직화 또는 집중화, 효율화와 유기화有機化가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확신하시고, 그를 위해서는 비상국가관리체제가 절실히 있다는 판단을 하시기에 이르러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른의 그와 같은 판단과 조치가 국가 최고관리책임자로서의 생존의지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음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따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일쇼크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어 우리의 앞길을 암담하게 했었습니다. 1975년 봄 드디어 월남은 공산화되어 영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계속된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철수 주장은 우리에게 불안과 부담을 더없이 가중시켰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은 행동과 더불어 배가倍加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우리 사회는 체제의 논쟁으로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른께서 지니셨던 순수한 심중心中을 이해 못하거나 혹은 이상理想만을 좇는 생각들은 어른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이 시대는 겨레의 근대화를 위한 천여의 기회
3, 4차 경제개발계획으로 선진국 기반 닦아**

그러나 빈곤추방과 경제건설을 신앙처럼 여기며 추구하셨던 어른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시대는 우리 겨레에게 주어진 근대화를 위한 천여天與의 기회라고 보시고 그 근간이 되는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기조를 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신념하에 비상관리체제를 견지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3,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중진국군中進國群의 선두주자 위치로 끌어올려 놓으셨습니다.

어른께서는 공언은 아니 하셨지만, 비상관리체제 즉 유신체제維新體制는 잠정적 조치라고 그 한정적 성격을 밝히

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께서는 그 조치의 잘 잘못은 결과를 놓고 후세 사가史家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토로吐露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것이 민족의 생존권 확보와 중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역사적 신념에 입각한 어른의 고심어린 결단이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혁명가답게 한 시대의 영웅답게 훌륭히 사라져
과거청산이 되어야 미래의 새로운 역사창조 가능**

그러나 국가발전이나 국력신장에 병행해서 성장하여 여유와 비판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의 체제와 정치에 대한 욕구불만이 점고漸高해 가던 7년 전 오늘, 애석하게도 어른께서는 높으신 경륜을 다 펴지 못하시고 혁명가답게 한 시대의 영웅답게 훌륭히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악연실색愕然失色에서 헤어내기 어려웠었습니다. 다음 순간 분연히 슬픔과 실의失意를 달고 일어서서 어른께서 못 다하신 일, 또는 심판받으셔야 할 일, 또는 보상하셔야 할 일들을 가려서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고, 국민과 역사가 명하는 바에 따라 1980년대에 기약했던 이 나라의 민주화, 인간화, 국제화를 위하여 일익一翼을 담당하려고 결심들을 했었습니다.

이는 어른의 서거逝去와 더불어 한 시대가 종언終焉을 고하고 새로운 다음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현재-미래가 언제나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고思考의 소치所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과거의 청산 위에서만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역사창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저희들의 결심이요, 선택이기도 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일방통행하는 소위 톱-다운(Top-Down) 방식의 리더십'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중지衆智의 집약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버텀-업(Bottom-Up) 방식의 리더십’과의 바람직한 교차交叉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성실한 추진력이 되고자 했던 당연한 참여의식이요 다짐이기도 하였습나다.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임受任받은 지도력이 아니고서는 정통성 있는 참된 지도력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가 바로 새 시대의 절대요구라는 인식의 귀결이기도 하였습나다.

또한 그것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와 같은 저희들의 소망과 인식과 이치가 그대로 구현되어야만, 다시는 군軍이 정치에 개입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再發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데서 비롯된 사유思惟이기도 하였습나다.

그러나 어른께서 가신지 반년 남짓 되던 5.16 다음날 그 불행은 되풀이 되었고, 저희들의 소망도 인식도 이치도 또한 심판받을 기회도 모두가 운산무소雲散霧消 되고야 말았습나다.

그간 어른께서는 가혹한 비판과 학대를 받아 오셨습나다. 아무나 입을 놀렸고 필봉筆鋒을 휘둘렀습나다. 그러나 어느 날엔가 반드시 정기正氣를 되찾는 날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나다.

저희들도 참기 어려운 수모受侮를 당해 왔습나다만, 꼭 참고 묵묵히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오직 이 나라가 잘 되기만을 기원해 왔습나다.

**생전에 닦은 비옥한 토양은 어떤 과수를 심어도
이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풍요로운 수확 기대**

세상이 바뀐 지 6년에 불과한 오늘날, 이 나라는 또다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나다. 그 간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은 헌법에 기인한다는 듯 이 피차彼此는 모두 현행 헌법에 그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있습나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오늘의 상황이 무엇에 연유하는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훤히 헤아리고 계시리라 믿

습나다.

한동안 저희들은 저희들의 손과 발을 푹푹 묶은 채로 대양大洋 한복판에 내던지고 가신 어른을 원망하기도 했습나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저희들에게 더없는 시련을 주셨고 오늘의 깊은 감회와 뉘우침을 주셨으며, 또 다른 다짐을 갖게 해주셨습나다. 저희들은 어른께서 이룩하신 위업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나다.

**감사와 흠모의 정이 갈수록 높아지고
어른께서는 우리 겨레의 가슴 속에서 영생**

어른께서는 시종일관始終一貫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민복國利民福을 염원하시면서 홀로 먼저 가셨습나다만, 생전에 가꾸시고 다져놓으신 비옥한 토양은 우리 겨레가 어떠한 과수果樹를 골라 심더라도 이제는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나다. 그러기에 겨레의 심전心田에는 감사와 흠모의 정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깊어가고 있습나다. 어른께서는 우리 겨레의 모든 가슴 속에서 영생하고 계십나다.

그동안 부당하게도 어른에 대한 추도의 제례祭禮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작동作動이 있었습나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어른의 위대하심을 조금도 훼손하거나 경감시키지는 못할 것입나다. 그럴수록 오히려 어른에 대한 겨레의 뜨거운 추앙과 애도의 정은 더욱 더해갈 것입나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저희들만의 초라한 추모제일지라도 어른께서는 크게 받으시고 결코 외로워 마시옵고, 부디 온갖 유한遺恨을 모두 거두시어 명부冥府에서 영부인과 더불어 영겁永劫의 복락福樂을 누리시옵소서.

삼가 명복을 비옵나이다. 謹啟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운정재단